

## ‘메가 서울’ 추진에 지방 소멸 우려 더 커졌다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비대한 서울’ 만드는데 대규모 국가 재정 허비 30년 이어온 수도권 규제 파기...메가시티 구상도 비광역권 인구 이탈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전국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30년 이상 이어온 수도권 규제 정책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미 인구·자본·기업·대학 등이 집약돼 있는 ‘서울-경기’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문화적인 국비가 투입됐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중단하고, 쇠락·소멸의 기로에 서있는 지방의 성장과 발전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982년 12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 수도권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규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수도권으로 인해 집값 폭등,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오염 증가, 비수도권 인구 유출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인위적으로 정부부처, 공기업 등을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를 조성해 이전하는 등 수십 년간 수도권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는 수도권 팽창을 막지는 못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효과적인 수도권 억제책을 도입하지 못하면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살게 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수도권 억제보다는 수도권의 입장에서 개발의 최소화에 정책의 초점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에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오히려 수도권을 확장시킨 점이 있으며, 혁신도시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5135만여명, 수도권의 인구는 2601만명(50.65%)이다. 2021년 전국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8%로, 전년(52.7%) 보다 소폭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실질 GRDP 성장률 역시 4.8%로, 비수도권(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구가 집적하면서 자본, 기업, 인재 등이 몰리고 우수한 대학, 의료시설 역시 수도권으로만 향하고 있다. 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서울, 경기 등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서 질 높은 상업시설, 문화·편의공간을 마련하면서 지방과 ‘차이’를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등 서울을 넓히고 수도권에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 쇠락과 소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자본 유출, 대학 폐쇄, 필수 의료 붕괴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금지하고, 공기업은 물론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기업, 대학, 의료시설 등의 지방 이전을 위한 재정 지원, 설치 축소 및 감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소도시와 농촌이 자리하고 있는 도(道)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부산·광주·메가시티 역시 신중한 검토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스피가 6일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전장보다 5% 넘게 급등해 2,500대로 올라섰다. 이날 코스피 증가는 전장보다 134.03포인트(5.66%) 상승한 2,502.37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57.40포인트(7.34%) 폭등한 839.45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 공매도 금지...주가 역대 최고치 ‘급등’

코스피 5.66% 오른 2502.37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까지

국내 증시가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인 6일 급등세를 펼치며 각종 신고가 속출했다.

이날 코스피 증가는 전장보다 5.66%(134.03포인트) 급등한 2502.37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고치다. 지난 2020년 3월 24일(127.51포인트)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3년 7개월여 만에 새로 썼다.

코스닥150지수와 코스닥150선물지수도 이날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 폭을 기록했다.

코스닥15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7.32포인트(12.12%) 오른 1,363.22에 거래를 마쳐 지난 2020년 6월 16일(78.94포인트)과 2020년 3월 20일(10.35%) 기록한 종전 최고 상승 폭과 상승

률을 갈아치웠다.

코스닥150선물지수 역시 177.30포인트(14.48%) 폭등해 지난 2018년 1월 2일(80.9포인트)과 2020년 3월 24일(10.77%)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150 선·현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57분에 코스닥시장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를 3년 5개월 만에 발동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 상승률(5.66%)은 2020년 3월 25

일(5.89%) 이후 3년 7개월 만에 높았고, 코스닥 지수 상승률(7.34%)은 2020년 3월 24일(8.2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이날 외국인인 손터버링(공매도 재매수) 등에 따라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인 7115억여원을 순매수해 지난 5월 26일(9112억원) 이후 가장 많았고,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 순매수(4697억원)는 지난 7월 26일(8820억원)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대였다. /연합뉴스

쓰레기 투기 단속 이동형 CCTV 실효성은? ▶6면

굿모닝 예향-맛과 맛 남도유류 '진도' ▶18-19면

김하성, 한국인 최초 MLB 골든글러브 수상▶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KIA 2024시즌 광주일보 통해 미리 보세요”

김여울 기자 오키나와 캠프 취재

‘호랑이 군단’의 2024시즌을 광주일보를 통해서 미리 엿볼 수 있다.

KIA 타이거즈는 2023시즌 아쉬움을 뒤로하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새 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1일 오키나와 마무리캠프를 시작한 KIA는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오는 28일까지 훈련을 이어간다.

‘가을잔치’에 실패한 만큼 아쉬움을 곱씹는 시간이자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약의 시간. 광주

일보가 ‘약속의 무대’인 오키나와를 찾아 KIA 캠프 소식을 생생하게 전한다.

광주일보는 뜨거운 햇살 아래 펼쳐지는 열정 가득한 훈련, 포스트 시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김중국 감독이 말하는 실패 원인과 구상, 프로 첫 훈련에 나선 ‘2024 루키’들의 좌충우돌 적응기 등 다양한 캠프 소식을 기사, 사진 그리고 영상으로 담을 예정이다. 광주일보에서만 접할 수 있는 KIA의 진짜 이야기, 광주일보 지면과 홈페이지 그리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롯데그룹의 간판기업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지역 영세기업 주식을 빼앗아 2조 2천억원 규모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을 가로챈 사건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광주에서는 한 대기업이 중소 시행사를 겨냥한 전대미문의 경영권 및 주식을 가로챈 사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널리 알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 롯데건설의 해괴한 근질권 설정

롯데건설은 롯데그룹의 대표 기업입니다. 롯데건설은 지난 10월 13일 케이앤지스틸이 2년간의 법적 소송 끝에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자 곧바로 선량한 주주들 몰래 100억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근질권을 행사하여 중앙공원 1지구 SPC 지분 49% (케이앤지스틸 지분 24% 포함)를 탈취했습니다. ※ SPC는 공원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를 말함.

### 공모 → 고의 부도 → 지분취득 등 부도덕 행위 주도한 롯데건설

롯데건설의 부도덕한 행위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우빈산업 등과의 사전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롯데건설은 SPC에 2,850억원의 잔고가 있었음에도 우빈산업을 통해 일부러 100억원을 갚지 않도록 하는 등 우빈산업, 허브자산운용과 공모하여 SPC를 고의 부도 처리했습니다.

### 법원판결 무력화시킨 주식인수 및 주주농간

중앙공원 1지구 SPC 주식 24%의 소유권은 케이앤지스틸에 있다고 재판에서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롯데건설은 패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주농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를 곧바로 실행하여 SPC 주주들의 신뢰를 기망하였습니다. 롯데건설은 전대미문의 주식탈취를 즉시 멈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SPC 주식을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총 사업비 2조 2천억원, 예상 이익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개발사업을 100억원에 탈취한 것은 대기업의 경영윤리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즉각 원상 회복을 요구합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주주 케이앤지스틸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